

스케줄러는 시스템적 측면에서 스케줄링 큐를 관리하는 역할. (순서에 따라 프로세스에  
① Job Queue : 메모리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세스. 자원을 할당)

② Ready Queue

③ Device Queue : I/O 대기 프로세스

1. 스케줄러의 종류.

① 장기 스케줄러

- 정해진 방식에 따라 디스크 내의 작업을 어떤 순서로  
메모리에 가져올지 정하는 프로그램. (메모리에 올라와야 정식 ready 프로세스)
- 디스크-메모리 사이의 스케줄링 담당.
- 시스템 전체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. (CPU, I/O 실행 비율에 따라). 균형 맞추는 애.  
프로세스 수 조절.
- '장기'니까 호출 빈도 ↓
- "new → ready" 상태 승인.

② 단기 스케줄러

- Ready Queue에 있는 (메모리에 존재하는) 프로세스 중 하나 선택.  
CPU 할당.
- Time Slice 당 1회 실행 → '단기'니까 호출 빈도 ↑.
- "ready → running" 상태 전이.

③ 중기 스케줄러.

- CPU 차지하려는 ready 상태의 프로세스들의 경쟁이 심해지면  
우선순위 낮은 프로세스들은 잠시 디스크로 쫓아냄  
→ 경쟁 완화되면 다시 메모리로 불러옴. (중단된 부분부터 실행).
- 스와핑 (swap out : memory (ready queue) → disk)  
swap in : disk → memory (r-q)
- '장기'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부하를 방지. (degree of multiprogramming 조절)